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09. 29. (월)

“나라장터 서비스 재개…대금지급 기능부터 정상화”

- 재해복구체계(DR)로 전환하여 나라장터 대금지급 기능 복구
-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하도급지킴이도 29일 서비스 재개 목표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나라장터를 재해복구시스템(DR)으로 전환하여, 9월 29일 월요일 09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 재해복구체계(DR, Disaster Recovery)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시스템·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IT인프라, 업무 기능 등을 신속하게 복원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

지난 26일 화재로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목록정보·홈페이지 등 18개 지원시스템 서비스 중단 직후 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가, 주말 동안 데이터 점검, 기능 테스트 등 작업을 진행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재가동을 준비하여 왔다. 다만, 재개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책적으로 일부 기능을 제한하여 민생에 밀접한 나라장터 대금지급을 우선 가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금지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하도급 지킴이도 29일 재개를 목표로 막바지 점검 진행중이다.

이로써 나라장터의 대금지급(점사점수 → 대금청구 → 지급결의 등) 관련 기능을 정상 사용할 수 있다. 입찰공고, 투찰, 개찰 등은 연기처리 하되, 시급한 입찰·계약 건은 나라장터에서 선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 재개 이후 발생할지 모를 시스템 지연·장애 시에도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 FAQ 등도 사전에 마련하여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및 수요기관에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며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나라장터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다” 면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여 나라장터와 지원시스템의 모든 서비스가 정상 제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정조달국 전자조달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방형준	(042-724-7901)
		담당자	서기관	이원천	(042-724-7516)
	공정조달국 전자조달관리과	책임자	과 장	강구형	(042-724-7539)
		담당자	서기관	김은희	(042-724-7154)

